

주원산오리, 이마트 델리 직원 대상 힐링 투어 개최



주원산오리는 지난 12월 10일 오리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이마트 델리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뜻 깊은 연말 이벤트를 선사하였다.

주원산오리는 가족이라는 소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1박 2일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델리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자 했다. 고객을 응대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스파를 비롯하여, 직원이 아닌 한 가정의 좋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복을 심어줄 수 있는 자녀와의 체험놀이를 제공했다. 또 주원산오리의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공장견학 기회를 제공했으며, 차별화된 와인숙성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오리제품 시식행사도 진행하였다.

주원산오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델리 직원들이 매장에 돌아가 고객에게 오감으로 느낀 자사 제품의 신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가 즐거웠고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공장 견학을 통해 제조 공정의 투명성과 청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주원산오리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높아졌다.”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 왜 좋은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원산오 제품을 권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한편 주원산오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체험 등을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오리시장 확대를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코리아더커드 박영진 회장, 코리아더커드 · 팜덕 · 다솔 총괄회장 취임



코리아더커드는 1월 2일 박영진 회장이 자사를 포함해 팜덕 · 다솔 등 3개 사의 총괄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2014년은 5000억원 매출 달성을 위한 도약의 원년”이라며 “임직원과 고객, 관계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윤리경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981년 영진축산을 설립한 후 코리아더커드 대표를 맡아 회사를 키워왔다. 한편 코리아더커드는 국내 오리업계 최초로 무균설비, 공기정화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압 ·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2년 호주 수출시장 개척을 발판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리 고기 가공용 전문 회사 팜덕과 함께 다향오리, 오리늘보 등 브랜드 제품을 개발해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솔 또한 코리아더커드의 관계사로, 오리의 부화와 사육, 도축,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오리 전문 기업이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2014. 01. 02

(주)주원산오리, ‘2013년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에서 상등급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3년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난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왼쪽 주원산오리 정은택 상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국 134개 도축장(소 · 돼지 79개소, 닭 · 오리 55개소)을 대상으로 2개월(10월~11월)간 ‘13년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12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 총 134개소 중 상등급 42개소(31%), 중등급 71개소(53%), 하등급 21개소(16%)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오리도축장이 중등급을 받은 것과 달리, 주원산 오리 도축장은 상등급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농협사료 사료가격 2.2% 전격 인하

농협 사료 가격이 평균 2.2% 인하됐다. 농협사료(대표이사 이환원)는 배합사료 가격을 12월 9일부터 전축종 평균 10원/Kg(2.2%내외)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사료의 인하조치로 축산농가에게는 연간 약 280억원정도의 사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하반기부터 환율과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요인은 발생하였으나 사료업계는 가격 인하를 외면해 왔었다. 그러나 농협사료가 가격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타 사료업체들에게 가격 인하 압력 효과가 기대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농협사료는 가격인상 시기에는 가장 늦게 올리고, 가격 인하시기에는 가장 빠르게 인하하여 사료가격 견제기능을 하고 있다”며 “2013년 상황은 인상시기에 가격인상을 자제함에 따라 인하시기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무척 아쉬웠다”고 말하고, 농협사료의 공익적인 역할인 사료가격 견제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민일보 이보원 기자 2013. 12. 10

(주)건지,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 ‘금상’ 수상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진행하는 2013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주)건지(대표이사 곽춘욱)는 ‘육계용 고상식계사’로 금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고상식계사는 기존의 깔짚이 깔려있는 바닥에서 사육하던 닭을 일정한 높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망 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닭의 계분은 밑으로 떨어지고 스크레파에 의해 수시로 외부로 배출됨으로써 닭이 출하될 때까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계사 내의 상층부로 인입된 따뜻한 공기는 상층부의 닭에게 배분되고 유해가스는 하단의 배기용 환풍기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며, 이러한 환기를 통해 계사 내부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차단하고 최소의 에너지 손실로 배기를 유도해 총체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 현재 국내 사육방식으로는 어려웠던 대형닭 사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